관세청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7. 24.(목) 10:00

관세청, 미국과 "은밀한 청소(Silent Sweeper)" 작전을 통해 총 30건, 31.4kg 마약밀수 차단

- 미(美) 관세국경보호청, 국토안보수사국(HSI), 마약단속청(DEA)과 6월부터 4주간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
- 액상대마 18.5kg, 필로폰 4.7kg 등 마약류 총 30건, 31.4kg 적발 성과

□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(수) 서울본부세관에서 「**제2차 한-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**[작전명: 사일런트 스위퍼(Silent Sweeper Ⅱ)]」 **성과보고회**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작전 기간(6.23.~7.18.) 동안 미(美)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**적발한 미국발 마약류**는 액상대마 18.5kg, 필로폰 4.7kg, 케타민 1kg,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* 2,782정 등 **총 30건, 31.4kg**에 달한다.

* 신경안정·진통 효과 등이 있는 알프라졸람, 클로나제팜, 덱스트로메토르판, 메틸페니데이트 등

< 「사일런트 스위퍼(Silent Sweeper Ⅱ)」 성과보고회 개요 >

- [**시간/장소**] '25. 7. 23.(수) 10:30~12:00 / 서울본부세관 중회의실
- [**참석자**] 한국관세청 국제조사과장 등 9명, 미국주한 관세관 및 수사·정보기관 지부장 등 20명
- [**내용**] 합동단속 활동 및 성과 평가, 최근 글로벌 마약밀수 동향 및 적발 기법 공유, 차년도 작전에 대한 양측의 사전 준비사항 논의 등

□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-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'사일런트 스위퍼(Silent Sweeper)'는 양 관세당국이 미국발(發)·한국행(行) 마약은닉 우범대상에 대해 현지 출발 단계와 국내 도착 단계에서 각각 우범대상 선별과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, 작전명은 '**비밀스럽게 조용히 마약범죄를 소탕한다**'는 의미다.

○ 양국은 사전에 준비한 마약 우범정보 교환 및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·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, 국경단계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**적발 정보와 송·수하인 정보**를 상대국에 제공하고,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**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** 및 **적발·검거**하는 체계다.

□ 이번 작전에는 한국 관세청과 미(美) 관세국경보호청(CBP), 국토안보수사국(HSI), 마약단속청(DEA)이 참여했으며, 제1차 합동작전 대비 **단속 기간과 대상, 협력의 범위를 확대**했다.

< 한-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「Silent Sweeper Ⅱ)」개요 >

■ [**기간**] '25. 6. 23. (월) ~ 7. 18. (금) / 1개월

■ [**운영체계**] 인천공항 특송센터 및 미(美) LA·신시네티 2곳에 통제본부(OCU)* 운영

* Operation Coordination Unit : 현지에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컨트롤 기능 수행

■ [**운영내용**] 미국발 한국행 마약은닉 의심 특송화물, 국제우편, 항공여행자, 항공화물 등에 대해 양국 통제본부에서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

○ **단속 기간**은 1주에서 **4주**로 연장하고, **단속 대상**은 특송화물에서 여행자, 국제우편, 항공화물까지 **모든 입국 경로로 확대**했다.

○ 특히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 소재 국제우편센터, 신시네티 소재 디에이치엘(DHL)특송허브에 **양국 작전 통제 본부를 설치**하고 **최초로 직원을 상호파견**하는 등 양국 간의 마약 이동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.

□ 두 차례에 걸친 한-미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**누적 적발량은 총 35건, 33.9kg**이며, 이는 1회 투약분 0.03g을 기준으로 1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.

< 제1~2차 차수별 마약류 적발 건수·중량 비교 >

차 수	기 간	실 적	
		건수(건)	중량(g)
1차	'24.4.29.~5.3. (1주)	5	2,489
2차	'25.6.23.~7.18. (4주)	30	31,361.2
합 계		**35**	**33,850.2**

○ 올해 제2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**품목별**로 살펴보면, 지난해 작전 기간과 같은 1주일로 환산했을 경우 **대마류는 6,148.2g으로 258% 대폭 상승**하였으며, 필로폰과 케타민이 새로 적발되는 등 밀수 품목이 **다양화**되고, 규모 역시 **대형화**되고 있다.

< 제1~2차 차수별 마약류 품목별 적발 실적 비교 >

(단위: 중량g)

차 수	대마류*	필로폰	케타민	기타**	합계
1차	2,381	-	-	108	2,489
2차	24,592.8	4,730.3	1,007	1,031.1	31,361.2
합 계	**26,973.8**	**4,730.3**	**1,007**	**1,139.1**	**33,850.2**

* 대마초 및 대마 오일, 대마 카트리지, 대마 젤리, 대마 롤 등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제품군
** 알프라졸람, 클로나제팜, 덱스트로메토르판,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의약품

○ 관세청 관계자는 **미국의 대마초 합법화** 이후 대마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**우리나라를 신흥 마약 시장으로 인식**하고 지속적으로 마약밀수를 시도한 결과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.

※ 미국발 마약류 적발 실적 : '24년 전체 881건, 787kg 중 181건, 120kg → 건수 20.5%, 중량 15.3% 차지
'22년 227건, 110kg(1위) → '23년 213건, 152kg(2위), → '24년 181건, 120kg(2위)

□ 이명구 관세청장은 "초국경 범죄인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**여러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**"라고 강조하며,

○ "관세청은 **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**들과 **국제공조를 강화**하여 국제 합동 단속의 표준을 선도하는 한편,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"라고 말했다.

붙임: 한-미 합동단속 개소식 및 합동작전 수행 사진 6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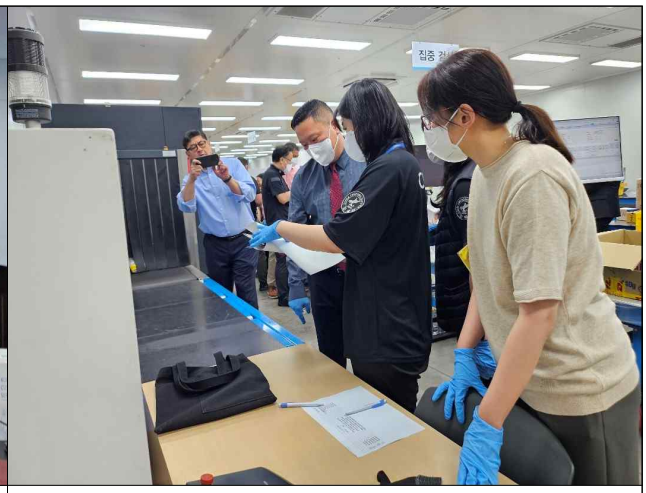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관세청 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최문기 (042-481-7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형 (042-481-775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**한-미 합동단속 개소식 및 합동작전 수행 사진**



(인천공항 특송센터) 6.23. 작전 개소식



(인천공항 특송센터) 합동검사 장면



(인천공항 특송센터) 합동작전 중간점검



(미(美) LA 국제우편센터) 합동검사 장면



(미(美) LA 국제우편센터) 작전종료후 기념촬영



(서울본부세관) 7.23. 성과보고회